

옛날 길과 지금 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영근

독문학자이자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은 ‘창(窓)’이라는 수필에서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는 태양이라고 하였다. 창을 통하여 광명을 찾듯이 우리는 길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어릴 때 사립문을 나서면 아래 동네와 위 동네를 가는 길이 우리 집 앞에 나 있었다. 주말이면 고성 방향의 진주 마산 유학생들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기차를 타러 반성역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고성에는 기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 수십 리를 걸어와서 기차를 이용하였다. 앞에는 들판으로 번어 나간 논길이 있었고 소를 몰고 잔데이(작당산성)로 올라가면 성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새터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큰 저수지가 있고 한골 재 너머 산길을 올라가면 고성 땅으로 접어든다. 자동차 다니는 한길(신작로)을 따라 가수개를 거쳐 논길을 지나 고개를 넘어 한참 걸으면 나의 모교인 이반성 초등학교가 나온다.

어렸을 때 내가 걷던 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 여름철 논길을 따라가면 논두렁에 콩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다. 논길 옆 도랑에는 밤이면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잡는 풍경도 예사로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나락이 한창 자랄 때면 한 밤중에 간조기 한 손과 밥을 지어 나를 데리고 논두렁에서 농신제를 지내곤 하셨다. 그해 농사가 잘 되라는 뜻으로 농신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는 것이다. 논길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가면 웅덩이를 만난다. 가을 때에는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눈에 물을 대었다. 나도 형들을 따라 물을 퍼 기억이 있다. 그러던 웅덩이도 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으로 변하였다. 농촌의 낭만이 서려 있던 논길도 지금은 농로로 바뀌어 트럭터가 오고간다.

산길을 따라가면 특히 가을철이면 빨갛게 물든 망개며 굴밤[도토리]이며 뽕뽕이며 온갖 산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뽕뽕[보리수나무]은 내가 예닐곱살 때 시사를 지내러 발치산 선산으로 오를 때, 익을 대로 익은 뽕뽕을 따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 다년생 나무에 열리는 붉게 익은 뽕뽕 열매를 입에 넣으면 시금털털한 액이 온 입안을 상큼하게 적셨다. 고려가요의 <동동>에 나오는 ‘보룻’이 이 뽕뽕을 가리키는지, 표준말은 ‘보리수나무’이다. 성안에는 돌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따 먹으면 어찌 그리 뽕뽕했는지. 작년 시제 때 올라가보니 옛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름 모를 무덤 한 쌍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 준 그 많은 길들은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으로 갈 때 걷던 발산재 너머 그 길은 수풀로 뒤덮여 있으며 그 대신 진주-마산간 사차선 산업도로가 선산 중허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다. 옛날 걸어 다니던 길들은 모

두 문혀 버리고 논길은 농로로, 한길은 산업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산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예전에 없던 ‘임도(林道)’가 새로 생겨 산불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자동차로 목재를 운반하기도 하는 세상으로 변모하였다. ‘임도’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없다. 이에 대응됨직한 ‘숲길’은 있어도 지칭개념이 다르다. ‘숲길’은 숲속에 난 길을 가리키는데 모두 산책로로 바뀌고 있으니 이 또한 조만간 폐어가 되지 않을까. 내 어렸을 적의 산은 삶의 터전이었다. 나무꾼들은 지계를 지고 산길을 따라 나무를 한 짐 해 와서 땔나무를 마련하거나 5일 장에 지고 가서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봄철이면 아낙네들은 깊은 산중에 가서 현입(훗날, 화살나무)을 훑거나 산나물을 뜯어 춘궁기를 넘겼다. 험한 산중을 헤매면서 채취하던 산먹을거리를 지금은 양식장에서 조달한다.

옛날의 산길은 등산로로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작년 준봉[고경명 선조의 장남] 묘소에 가서 어렸을 때 다니던 산길을 찾으니 역시 자취도 없어지고 그 대신 등산로가 나 있었다. 길은 길이로되 내 어렸을 적의 산길은 등산로라는 용도가 다른 길로 변하여 있었다. 옛날 길은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 길은 건강의 터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산길이든 등산로든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산길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지금은 등산로를 통하여 건강을 누리고 있으니.